

# 정례브리핑

2020.8.3(월)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입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청사 인근 식당에서 사회·문화 분야 정책 고객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후 2시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차관은 8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차관회의에 참석하며,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남북고속철도건설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통일부에서 산하단체 관련해서 사무검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25개 단체 먼저 사무검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25개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네, 25개 단체를 선정한 기준은 연간 실적보고서를 받는데요.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활동이 좀 부실하거나 또는 제출해야 될 자료들이 부실하거나 이런 것을 근거로 우선 단체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질문> 그럼 일각에서 탈북민단체들이나 아니면 북한인권단체들 위주로 선정했다는 그런 말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답변> 네, 산하 등록법인 사무검사와 등록단체들에 대한 점검은 저희 통일부 소관분야 단체와 법인과 단체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무검사와 점검에는 행정적 인력이 대규모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행정적 인력을 감안해서 우선 탈북민 단체와 대북인권 관련 단체들을 먼저 점검을 하고 추후에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 단체들로 점검과 검사를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